

간절함 잘 알기에... 10일 더 기다린다



ML이나 잔류냐 ... 양현종의 '운명의 날' 30일로 미뤄

**KIA 조계현 단장 "선수의 뜻 존중한다
진척 없으면 30일 바로 도장 찍게 준비"**

양현종의 '운명의 날'이 30일로 미뤄졌다. 미국프로야구 무대 진출을 노리는 좌완 양현종이 '도전'을 위해 10일을 더 기다리기로 했다. 양현종은 앞서 20일을 시한으로 잡고 해외 진출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부진 속 코로나19 상황까지 맞물려 해외 시장이 경직되자 KIA는 양현종에게 미리 '리브콜'을 보내며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 지난 14일 만남을 갖고 대략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KIA와 양현종 측은 19일 다시 한번 얼굴을 맞댔다. 이번에는 마라톤협상을 하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디데이였던 20일 양현종의 행선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양현종 측이 "30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KIA도 도전 의식을 존중해 시간을 가지고 양현종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KIA 조계현 단장은 "선수가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나도 선수 생활을 했던 만큼 그 심정을 잘 이해한다"며 "팀에 꼭 필요한 선수지만 뜻을 존중하면서 기다리겠다. 이후 진척이 없으면 30일 바로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빅리그 무대를 꿈꾸는 양현종에게 이번은 세 번째 도전이자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다. 양현종은 2014시즌이 끝난 뒤 구단의 양해를 구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진출을 노렸다.



조계현 단장

하지만 생각보다 적은 포스팅 액수가 기록되면서 1차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양현종은 2016시즌을 마무리한 뒤 이번에는 FA 신분으로 해외 무대에 어필했다. 해외 진출에 대한 강한 의사를 보였던 만큼 KIA는 양현종을 빼고 2017시즌을 구상했다. 하지만 양현종은 이번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국내 복귀로 방향을 선회했다.

KIA는 '집토끼' 나지완과 '100억 사나이' 최형우를 잡느라 이미 거액을 투자했던 상황. 확실한 카드에 집중했던 KIA는 양현종의 급선회에 '단년계약' 형태로 방법을 찾았고, 두 번째 FA 자격을 얻기 전에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줬다. 양현종은 2017년 MVP와 우승 주역으로 정점에 서며 이에 화답했다. 이후 해외 진출 타진 대신 팀 에이스 역할에 집중한 양현종은 두 번째 FA 자격을 얻은 뒤에야 세 번째 도전에 나서게 됐다. 양현종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34세가 됐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양현종은 쉽게 미국 도전 꿈을 놓지 못하고 10일을 더 기다리기로 했다. 초반과 달리 많은 조건 등을 생각한 채 '도전'에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 고민에 나섰다. 양현종의 2021시즌 시계가 30일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불법 베팅 논란 사과...재발 방지 노력하겠다"

프로야구선수협 입장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현역 선수의 불법 스포츠 베팅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일부 선수의 부정 행위와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며, 선수관리와 교육에 책임이 있는 단체로서 프로야구 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수협회는 KBO와 공조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두산 베어스는 최근 불법으로 스포츠 토토에 베팅한 투수 정현욱과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한 포수 권기영의 사례를 확인하고 KBO에 자격정지선수 지정을 요청했다. 이들은 각각 14일과 1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KBO는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 선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수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프로야구선수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선수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불법 도박 및 법률에 위반하는 도박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는 점을 선수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며 "한국프로야구선수를 대표하는 선수협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수의 권익 보호와 복

지정진을 목표로 하는 곳이 선수협이지만, 무조건적인 선수 보호보다는 선수의 품위손상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수협 자체 제재를 통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다. 동시에 KBO에서 진행하는 클린베이스볼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박'은 KBO 야구규약 제14장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른 징계 사유 중 하나다. KBO 규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선수는 1회 위반시 출장 정지 5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처벌을 받는다. 현역 선수의 스포츠토토 베팅 역시 법률 위반 사안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에는 '체육진흥추진표권 발행 대상 운동 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추진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다. KBO도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복싱 국가대표팀에 첫 여성 지도자 탄생

캐나다 출신 포틴 코치 선발 "도쿄올림픽 최고 성적 내겠다"

한국 복싱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여성 지도자가 탄생했다. 대한복싱협회는 20일 캐나다 여자복싱 국가대표를 지낸 아리안 포틴(37)을 코치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포틴은 13년 동안 캐나다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2006년과 2008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판정 논란 끝에 첫 라운드에서 탈락했다. 이후 캐나다에서 지도자로 변신한 포틴은 2019년 2월 캐나다 선수단을 이끌고 한국 국가대표 복싱 선수단과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포틴의 지도 능력을 유심히 지켜본 복싱 관계자의 추천을 통해 한국 국가대표팀과 인연을 맺게 됐다. 포틴은 "도쿄올림픽을 비롯해 각종 국제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틴이 가세한 한국 국가대표팀은 지난 18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충주 복싱 훈련장에서 강화 훈련을 시작했다. 선수단은 감독 나동길과 코치 장한근, 이경열, 김정주, 한순철, 포틴을 비롯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오연지, 임예지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대한복싱협회가 20일 캐나다 여자복싱 국가대표를 지낸 아리안 포틴을 코치로 선발했다. 사진은 국가대표팀을 지도하는 아리안 포틴 코치(오른쪽 두 번째). <대한복싱협회 제공>

메시, 두 경기 출전 못한다 ... 뒤통수 가격 징계 확정

경기 도중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뒤통수를 가격해 레드카드를 받은 리오넬 메시(사진·FC바르셀로나)가 두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스페인축구협회 경기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메시에게 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메시는 18일 스페인 세비야의 올림피코 경기장에서 치러진 아틀레틱 빌바오와 2020-2021시즌 스페인 수페르코파 결승전에서 2-3으로 끌려가던 연장 후반 추가시간 아시에르 비알리브레와 경합 과정에서 뒤통수를 때렸다. 비알리브레와 두 차례 어깨싸움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한 메시가 비알리브레의 뒤통수를 때렸고,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메시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메시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퇴장당한 것



은 753경기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었다. 뒤통수 가격으로 메시는 최대 12경기까지 출전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다행스럽게도 스페인축구협회는 반칙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2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메시는 오는 22일 3부리그 소속의 코르넬리아와 2020-2021 코파 델 레이(국왕컵) 32강과 25일 엘체와의 2020-2021 프리메라리가 20라운드 원정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소속팀인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징계 조치에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벨기에 프로축구팀 29세 스틸 감독 선임

이승우(23)가 뛰는 벨기에 프로축구 주필러리그에 만 스몰아홉 살의 사령탑이 부임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주필러리그의 베이스스톡이 선임 감독으로 1992년생 잉글랜드 청년 윌리엄 스틸을 선임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스틸은 10대 후반부터 잉글랜드와 벨기에 축구계에서 일하며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왔다. 19세에 잉글랜드 팀 프레스턴 노스 엔드 코치 직을 맡으며 경력을 시작한 그는 2017년에는 벨기에 하부리그 리르서 코치로 부임해 감독까지 지

냈다. 2018년부터는 베이스스톡에서 코치로 일했다.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던 에르난 로사다 감독이 미국프로축구(MLS) DC 유나이티드 사령탑으로 떠나자 구단은 주저 없이 스틸을 차기 사령탑으로 낙점했다. 젊지만, 팀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지도자 역량도 갖춘 그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스틸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벨기에 1부 리그 최연소 감독이다. /연합뉴스